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③

규 원 사 화

▣ 一沙 權 正 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한 분의 큰 주신이 이에 네번째로 환웅천왕에게 명하기를 [이와 같이 사람과 만물을 일으키는 공적을 이미 이루어 완전하게 하였다. 그대는 그 노고를 너무 애석히 생각말고 뭇 사람들을 이끌어 몸소 하계에 내려가서, 하늘을 이어서 가르침을 세움으로서 만세토록 후생의 모범이 되도록 하라] 하고, 천부(天符)의 세가지 인(印)을 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널리 천하에 교화를 베풀어라] 하였다. 환웅천왕은 흔연히 명을 받들어 천부의 세가지 인을 지니고서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 등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의 밝달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태백산'이라 함은 곧 백두산을 말한다. 뭇 무리들이 그를 임금으로 추대하니, 그가 곧 신시씨(神市氏)이다. 초목이 뿌리를 내리고 금수가 무수히 생겨난 이래 또 십만 년이 되었다.

二 太始紀 태시기

神市氏旣爲君長, 以神設敎, 存其彝性, 周護飽養, 聽其繁衍, 天下民物, 於是漸盛. 但此時, 開闢不遠, 隨處草木荒茂 鳥獸雜處, 人民艱困殊甚, 且猛獸 毒蟲不時衝動, 人民被害不少. 神市氏, 卽命蚩尤氏治之. 蚩尤氏, 實爲萬古强勇之(租) [祖], 有旋乾轉坤之力, 驅使風 雷 雲 霧之能, 又造刀戟 大弩 巨斧 長槍, 以之而治草木 禽獸 蟲魚之屬. 於是草木開除, 禽獸蟲魚, 僻處深山大澤, 不復爲民生之害矣. 是以蚩尤氏, 世掌兵戎制作之職, 時常, 鎭國詣敵, 未嘗少懈.

신시씨가 임금이 되어 신(神)으로서 가르침을 베풀며, 타고난 떳떳한 성품을 보존케하고 두루 보살펴 배불리 먹이고 양육하며 무성하게 불어남을 모두 받아들이니, 천하의 백성과 사물은 이로서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는 개벽한 지 아직 멀지 않은 때인지라, 곳곳에 초목이 무성하고 날짐승이며 들짐승이 어지러이 섞여 있어 사람들의 괴로움이 매우 심하였고, 더욱이 사나운 짐승과 독충들도 때를 가리지 않고 다투어 사람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신시씨는 곧 치우씨(蚩尤氏)에게 명하여 이를 다스리게 하였다. 치우씨는 진실로 만고에 있어 강인하고 용맹함의 조상이 되니, 천지를 움직여 휘두르는 힘과 바람·번개·구름·안개를 부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칼·창·큰도끼·긴창 등을 만들어 이로서 초목과 금수며 벌레와 물고기의 무리를 다스렸다. 이에 초목이 차츰 걷히고 금수와 벌레며 물고기들이 깊은 산 속이나 큰 못 속으로 피하여 달아나 숨어 버려서 다시는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해악이 되지 않았다. 이로서 치우씨는 대대로 병기 만드는 일을 맡았으며, 항시 나라 안을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적을 토벌하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神市氏, 見人居已完 蠢物各得其所, 乃使高矢氏, 專掌養之務, 是爲主穀. 而時, 稼穡之道不備, 又無火種, 民皆就食草蔬木實, 鮮血, 茹生肉, 殆不堪其苦. 高矢[乃氏](氏, 乃)漸敎稼穡之方, 猶以無火爲憂. 一日, 偶入深山, 只看喬林荒落, 但遺骨骸老幹枯枝, 交織亂叉; 立住多時, 沈吟無語, 忽然大風吹林, 萬竅怒號, 老幹相逼, (揆)[擦]起火光, 閃閃, 乍起旋消乃猛然, 省悟曰: [是哉! 是哉! 是乃取火之法也.] 歸取老槐枝, (揆)[擦]而爲火, 功猶不完. 明日, 復至喬林處, 徘徊尋思, 忽然一個條紋大虎, 咆哮躍來, 高矢氏大叱一聲, 飛石猛打, 誤中巖角, 炳然生火, 乃大喜而歸, 復擊石取火. 從此, 民得火食, 鑄冶之術始興, 而制作之功, 亦漸進矣.

신시씨는 사람의 거처가 이미 완비되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물들 또한 각기 그 마땅한 처소를 얻었음을 보고, 이에 고시씨(高矢氏)로 하여금 먹여 살리는 일을 맡도록 하였으니, 그것은 곡식을 주관하는 일이다. 이때는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일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불씨 또한 없던 때라, 백성들은 모두 풀의 푸성귀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신선한 피를 마시며 날고기를 먹었으니, 그 고초는 참아내기 어려웠다. 고시씨가 이에 점차 곡식을 심고 거두는 방법은 가르쳤으나, 여전히 불이 없는 것이 근심이 되었다.

하루는 우연히 깊은 산 속에 들어가니 높이 우뚝 솟은 나무들이 어지럽게 쓰러져 있는 것이 온 사방으로 보였는데, 앙상하고 말라버린 체로 메마른 가지들만이 남아 서로 어지럽게 얽혀져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으려니, 갑자기 숲으로 큰 바람이 불어와 모든 구멍들이 성난 목소리를 내뱉고 앙상한 가지들은 서로 밀치며 비벼대었는데, 마찰되어 일어나는 불길이 번쩍번쩍 빛나는 듯 언뜻 일어나다가는 도리어 사글어드는듯 하더니 이내 맹렬하게 타오르는지라, 깨달음이 있어 이르기를 [이것이로다! 이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로구나]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기행문

단종의 유배지 영월 청령포를 찾아가다

▣ 權 貞 澤 (安東權氏 耆老會長)

2012년 8월 3일 아침6시 일산 본가를 출발 영동고속도로를 경유하여 단종의 유배지를 찾았다. 단종은 세종23년(1441년) 7월 23일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 權氏)사이에서 원자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홍위(弘暐)이다. 8세가 되던 1448년에 왕세손에 책봉(冊封)되었고 예문관제학 윤상(尹祥)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1450년에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하게 되자 그해 7월20일 홍위는 10세의 나이로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며 1452년 문종이 승하 후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계유정란 후 1455년 6월 11일 단종은 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15세에 상왕이 되었으며 박팽년, 성삼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된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 1457년(세조3년) 노산군으로 감봉되고 윤6월 22일 창덕궁을 출발하여 7일 후인 6월28일 영월 청령포로 유배 되었다. 그해 9월 금성대군 유가 다시 그의 복위를 꾀하다가 사사되자 단종은 폐서인되고 1457년 10월 24일 17세로 관풍헌에서 승하 하였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옵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놋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단종께 사약을 진어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통한 심정으로 청령포를 바라보면서 읊은 시조이다.

계유정난의 발발과 폐위

단종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지은 사건인 계유정난(癸酉靖難)은 1453년(단종1) 10월 10일에 일어났다. 단종이 즉위한지 1년 반 만이었다. 그것은 태종이 일으킨 제1,2차 왕자의 난과 함께 조선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권력 투쟁이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韓明澮) 등은 황보인,김종서 등 주요 대신들이 안평대군을 추대하려는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전격적으로 거사했다. 정난의 성공으로 수양대군은 실권을 장악했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영집현전 경연 예문춘추관 서운관사(領集賢殿經筵藝文春秋館書雲觀事) 겸 판이병조사(兼判吏兵曹事) 중외병마도통사(中外兵馬都統使)라는 유례없이 길고 어마어마한 관직은 그런 권력의 크기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정난의 가장 중요한 숙청 대상이었던 안평대군은 즉시 강화(江華)로 유배되었다가 1453.10 사사되었고 또 다른 위협 인물인 금성대군(錦城大君)도 유배되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의 선위를 받아들여 국왕으로 등극하고 단종은 24세나 많은 숙부의 상왕이 되어 수강궁(壽康宮. 창경궁의 전신)으로 물러났다.

사육신 사건과 승하

사육신사건은 1456년(세조 2) 6월 2일에 발생했다. 권력의 생리상 그 사건이 아니었어도 단종은 천수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세조의 신하들은 역모의 근본적 원인은 상왕이라고 지목했다. 세조의 신하들에게 그것은 논리적인 판단이었다.

단종의 최후는 곧 찾아왔다. 한 달 뒤 경상도 순흥(順興)에 유배되었던 금성대군이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가 발각된 것이다. 세조의 신하들은 다시 한 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 결과 금부도사 왕방연(王邦衍)은 사약을 가지고 영월로 갔다. 실록에 따르면 10월 24일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하자 단종은 목을 매 자진(自盡)했다고 되어 있다. 사후의 처리도 비참했다. 야사에 따르면 시신이 청령포(淸泠浦) 물속에 떠있는 것을 호장(戶長) 엄흥도(嚴興道)가 몰래 수습해 현재 장릉(莊陵) 자리에 안장했다고 한다.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려 쌓여 있고 한쪽은 험준한 절벽으로 막혀있어 배로 강을 건너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유배지이다. 단종은 1457년 6월 28일부터 2달 동안 유배생활하고 그해 여름 홍수로 청령포가 범람하여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관풍현으로 옮겨 2달 동안 유배생활하다 10월24일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이 내린 사약을 받아 사망을 하게 되었다.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회비
△권영익(부총재) 5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오탁(안동) 20만원
△권오정(안동) 20만원

소 계 40만원

▣ 대의원회비
△권오섭(진천) 10만원
△권태복(금천) 10만원

소 계 20만원

▣ 찬조금
△권동균(양평) 10만원

합 계 120만원

냄새를 풍기더라도 황제가 되고 싶다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동진 간문제 시절에 환온(桓溫)은 재주도 있고, 지략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위와 명망도 갖고 있었다.

그는 진(晉)이 낙양에 도읍을 두고 있을 때에 오호(五胡)의 침략을 받아서 남쪽 양자강유역에 다시 둥지를 튼 동진에서 환온은 큰 버팀 목이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과거에 진의 도읍이었던 낙양을 점령하였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공로 덕택에 대사마(大司馬)에까지 올랐다. 동진 안에서는 그가 최고의 군권(軍權)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황제가 될 생각을 했다.

냄새가 난다는 말은 부정(不正)이나, 불의(不義), 혹은 반역(叛逆) 같은 짓을 말하는 것이다. 또 만년 동안 이름을 남기겠다는 말은 황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자기가 세운 공로만 생각했지 자기가 저지른 실패는 고려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보면 환온은 동진의 황제가 될 수 없는 데도 이를 이루고자 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그는 황제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점을 잘 치는 사람에게 물었다. "밝으신 공의 공훈은 우주(宇宙)에 이를 것이고, 지위는 신하의 최고까지 이를 것입니다." 공로를 세워서 신하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있지만 황제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도 환온은 그의 욕심을 포기할 줄 몰랐다.

이러한 환온의 마음을 읽은 그의 참군인 치초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건대 그가 세운 공로를 가지고는 순리로 황제가 되기는 어렵다는 말을 했다. 그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황제가 되고자 했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이 없게 되자, 비겁하게도 당시의 황제 간문제의 약점을 이용하였다. 당시 황제인 간문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간문제는 자기의 후궁의 침실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서 아기를 낳게 하고, 그를 후사로 삼으려고 한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이 소문이 돌면 환온은 간문제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서 황제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임시로 세운다음에 자기가 그 사람에게 선양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드디어 환온은 소문이 퍼지자 이 소문을 근거로 폐위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었다.

그리고 군대를 끌고 건강으로 들어갔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기병(起兵)이었다. 사마씨가 아닌 사람으로 간문제의 뒤를 잇게 할 수 없다는 명분이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황제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결국 황태후로부터 현임황제를 폐위시키고, 대신 회계왕(會稽王) 사마욱(司馬昱)을 황제로 세우도록 종용하였고, 드디어 그를 황제로 세웠다. 일차적으로 성공했다. 이제 사마욱으로부터 선양을 받으면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 생각지도 않게 황제가 된 사마욱은 환온이 선양을 요구하려고 들어오자 환온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눈물만 계속 흘린 것이다. 사마욱이 환온에 앞서 선수를 친 것이다. 결국 환온은 자기가 세운 황제 사마욱에게 자기의 본래 뜻을 전달할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더러운 방법으로라도 황제가 되고 싶어했던 환온의 꿈은 깨진 것이다.

대선이 다가 온다. 온통 깨끗하고 능력 있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한 몸 바치겠다는 사람들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온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온갖 시시콜콜한 약점을 찾아내서 발표한다. 이러한 일들이 마치 환온처럼 자기의 냄새나는 속마음은 감추고, 간문제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저급한 행동이 아닌지 살펴 볼 일이다.

바로잡습니다

종보 446호 1면6단 一家九封君 기사 중 정간공이 5남을 두었는데 오기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하니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간공(靖簡公)은 5남을 두었으니 장자는 공경공 화(和)이고 차남은 이기(二己), 3남은 평후공 충(衷)이며 4남은 문충공 근(近)이며 5남은 매헌공 우(遇)이다. 장남 공경공 화(和)는 도성축조 제조(提調), 삼사우복야 상의중추원부사, 도총관을 지내고 아우 이기(二己,華嚴宗 禪師)와 함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이루니 양촌이 발문을 지었다.…

차남 이기(二己)는 출가하여 화엄종의 선사(華嚴宗 禪師)가 되었다. 아우 매헌공(梅軒)의 문집 시제(詩題)에 '오형국일사남공지주소해인사(吳兄國一師南公之住所海印寺)'라 하여 공이 국사(國師)로서 남공(南公)의 칭호를 받았음을 알 수있다. 또 양촌집에 '증화엄중덕의침서(贈華嚴中德義砧序)에도 공이 남공의 칭호를 받고 지위가 도승총(都僧銃)의 총섭(總攝)임을 알 수 있다.

삼남 평후공(平厚公) 충(衷)은 …사남 양촌(陽村) 문충공(文忠公) 근(近)은…오남 매헌공(梅軒公) 우(遇)는 …

봉군(封君)이란 고려문종때 봉작제에서 1298년(충선왕 즉위년)관제를 개혁해 봉군제도를 처음 사용하였다. 봉군은 나라에 공을 세워 공신 칭호를 내리는 것과 달리 왕의 아들과 왕비의 아버지외 공로가 다대한 경우 1품공신을 부원군, 2품공신을 군으로 봉작하였으니 공신중의 공신인 것이다.

성인들의 사상

退溪 李滉과 進聖學十圖箚

퇴 계 이 황 진 성 학 십 도 차

(지난호에 이어)

1.태극도설(太極圖說)

무극(無極)이면서 태극(太極)이다. ●태극이 동(動)하여 양(陽)을 낳고, 동이 극(極)하면 정(靜)하니, 정하여 음(陰)을 낳고, 정이 극하면 다시 동하니, 한번 동하고 한 번 정하음을 이른다.)함으로 사생(死生)의 설(說)을 안다." 하였으니, 위대하도다 역(易)이여, 이야말로 지극한 것이로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도설(圖說)의 머리에 음양(陰陽) 변화의 근원을 말하였고, 그 다음에 곧 사람이 천성으로 타고난 바를 밝혔다. 여기에, '오직 사람만이 빼어나서 가장 영검하다'는 것은 순수지선(純粹至善)의 성(性)이니 이것이 소위 태극(太極)이요, '형체가 생기자 정신이 발(發)한다'는 것은 양(陽)이 동(動)하고 음(陰)이 정(靜)한 작용이다. '오성(五性)이 감동한다'는 것은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 수·화·목·금·토를 낳는 성(性)이요 '선(善)과 악(惡)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남성(男性)을 이루고 여성(女性)을 이루는 상(象)이요, '만사가 나온다'는 것은 만물이 화생(化生)하는 상이다. 그리고, '성인이 중정(中正) 인의(仁義)로써 정(定)해지고, 정(靜)을 주장하여 인극(人極)을 세운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또한 태극의 전체를 얻어서 천지와 더불어 혼합하여 간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그 아래 글에 또 '천지·일월·사시·귀신의 4자(四者)와 합일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말하였다." 하였고, 또 그는 말하기를 "성인은 수행하는 행위에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고, 이에 이르지 못하여 수행하는 것은 군자(君子)의 길(吉)하게 되는 까닭이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거스르는 것은 소인(小人)이 흉하게 되는 까닭이다. 수양하고 거스르는 것이 역시 공경과 방자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니, 공경하면 욕심이 적고 이(理)가 밝아진다. 욕심을 적게 하고 또 적게 하여 욕심이 무(無)에 이르면, 정(靜)할 때는 허(虛)하고 동(動)할 때는 곧아서 성(聖)을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2.서명(西銘)

하늘[乾]은 부(父)라 일컫고, 땅[坤]은 모(母)라 일컬으며, 나는 여기에 미소(微小)한 존재로 혼연(混然)히 그 가운데에 처(處)하므로, 천지의 가득찬 물질[塞]은 나의 몸이요, 천지의 주재[帥]는 나의 성(性)이며, 백성은 나의 동포요, 만물은 나의 편이며, 대군(大君)은 내 부모의 종자(宗子)요, 대신(大臣)은 종자의 가상(家相)이며, 나이 많은 사람을 높이는 것은 <나의>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는 까닭이요, 외롭고 약한 이를 자애(慈愛)하는 것은 <나의> 어린이를 어린이로 여기는 까닭이다. 성인은 <천지>와 덕을 합한 것이요, 현인(賢人)은 빼어난 이다.

화(化)를 아는 것은 그 <부모> 일을 잘 계승하는 것이요, 신(神)을 궁구(窮究)하는 것은 그 <부모> 뜻을 잘 계승(繼承)하는 것이다.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부모>에게 욕됨이 없는 것이며, 마음을 보존(保存)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음이다. 맛 좋은 술을 싫어하는 것은 숭백(崇伯)의 아들 우(禹)가 부모의 봉양을 돌보는 것이요, 영재(英材)를 기르는 것은 영봉인(潁封人)이 효자의 동류를 만드는 것이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서명(西銘)은 정자(程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理)는 하나인데 나뉨[分]이 다름을 밝힌 것이다' 하였으니, 대저 하늘[乾]로써 부(父)를 삼고 땅[坤]으로써 모(母)를 삼는 것은, 생물이 <되어> 그러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른바 이(理)는 하나요, 인물이 생함에 있어 혈맥가진 무리가 각각 그 어버이를 어버이로 하고 그 자식을 자식으로 하니, 분(分)이 어찌 다르지 아니하리요."라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